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①	②	④	④	③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②	④	②	②	③	③	④

해설

- 고려는 1377년 우왕 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는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하였다. 기록으로 전하는 가장 오래된 인쇄물은 1234년 인종 때의 <상정고금예문>이다.
 - 백자는 16세기 이후 유행한 자기이며, 12세기 중엽 고려 귀족문화를 대표한 것은 상감청자이다.
 - 팔만대장경(재조대장경, 1236~1251)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최우의 집권기인 고종 때 제작에 착수하였다.
 - 고려 시대의 유학은 중국의 유학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유교가 정치이념으로 채택되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물들이 과거제도를 통하여 문신으로 등용되었다.
- <본조편년강목>은 충선왕 때 민지가 편찬한 사서로, 문종에서 고종까지의 고려사를 편년체와 강목체를 결합하여 서술하였다.
 - <의방유취>는 세종 때 중국의 역대 의서를 집대성한 의학 백과사전이다.
 - <삼국사절요>는 성종 때 서거정, 노사신 등이 <삼국사기>에 빠진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고조선부터 삼국 시대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의 사서이다.
 - <농사직설>은 세종 때 정초 등이 중국의 농업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우리 풍토에 맞는 독자적 농법을 보급할 목적으로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이다.
- ㄹ. 신문왕 때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여 국가의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였다(687). → ㄴ. 이후 귀족의 경제기반인 녹읍을 폐지하였다(689). → ㄷ. 성덕왕 때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농민에 대한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722). → ㄱ. 경덕왕 때 귀족들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하였다(757).
- 고려 무신집권기 당시 백제 부흥운동을 표방하며 일어난 봉기는 1237년 이연년의 난에 해당된다. 조위총의 난은 1173년 서경 유수 조위총이 무신 정권에 항거하여 일으킨 난이다.
 - 망이 망소이의 난(1176)은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다.
 - 1193년 경주를 중심으로 경상도 일대에서 김사미·효심 등이 신라부흥을 내걸고 난을 일으켰다.
 - 1198년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이 대규모의 반란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고려 왕조 최초의 노비 해방운동이었다.
- ㄴ. 청군과 일본군이 출병한 상황에서 동학 농민군과 정부는 외세의 개입을 배격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전주화약을 체결하였다(1894.5) → ㄹ. 일본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제1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되었으며, 개혁 추진을 위해 군국기무처를 신설하였다(1894.6). → ㄷ.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굳어지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2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되었다. 고종은 근대적 성문헌법의 효시로 볼 수 있는 홍범14조를 반포하였다(1895.1). → ㄱ.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위신이 추락하고 친러파가 대두하면서 고종은 거처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는 아관파천을 단행하였다(1895.10)
-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한일 협정)은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업',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 '한일 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 협력', '한일 문화재 및 문화 협력'을 다루었다.
 - 한일 협정의 기본 구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일 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제는 타협점에 도달하였으나,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외면되었다.
 - 시민들과 학생들은 1964년 6월 3일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벌였다.
 - 조약 협의를 위해 1962년 도쿄에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

본 외상이 비밀회담을 가졌다.

- ㄱ. 성종 때 건원중보를 발행하였으나 널리 유통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 고려 후기에는 관청 수공업이 쇠퇴하고 민간 수공업과 사원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 고려시대에는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져,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원 간섭기에는 원의 지배인 보초가 고려 일부 지역에서 유통되기도 하였다.
- ㄷ. 효종 때 네덜란드 출신의 벨테브레이와 하멜을 훈련도감에 배속시켜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였다.
 - 숙종 때 금위영을 신설하여 5군영 체제를 완성하였다.
 - 영조 때 수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의 부유한 계층이 국방비를 부담하게 하는 <수성요음>을 반포하였다.
 - 정조 때 서울 주변의 네 유수부(개성, 강화, 광주, 수원)가 서울을 엄호하는 체제가 확립되었다.
- 구석기인들은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으며,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 단양 수양개,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등은 내륙 지역에 위치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이다. 주로 고기잡이와 발농사를 하며 생활한 시기는 신석기 시대이다.
 - 고인돌과 돌널무덤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이다.
 -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이다.
- 통일신라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 설치한 9주 가운데 옛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에 3주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5소경도 이에 해당한다.
 - 통일 이후 신라는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보덕국인을 중앙군인 9사당에 포함시켜 민족융합을 시도하였다.
 - 천태종은 11세기 고려 문종 때 대각국사 의천이 창시한 종파이다.
 - 신라 중대 때는 무열왕의 후손들이 즉위하면서 비교적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였다.
- 김은경, 최치원, 최언위, 최승우는 6두품 출신이면서 당에 유학을 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빈공과에 급제한 후 귀국하였다. 6두품은 삼국 통일 후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하면서 정치적 진출을 활발히 하였으나 하대에는 골품제의 모순에 불만을 가지고 반신라적인 성향을 보이며 호족 세력과 함께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 대전자령 전투(1933)를 이끈 인물은 한국독립군 사령관 지청천이다. 지청천은 1931년부터 중국 호로군과 한·중 연합군을 편성하여 쌍성보(1932), 경박호(1933), 사도하자(1933), 동경성(1933),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 김두봉, ② 양세봉, ④ 김원봉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 12세기 초 문벌귀족 출신의 이자겸은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안정을 명분으로 금에 대한 사대정책을 취하였는데, 이로 인해 국론이 크게 분열되었고, 문벌귀족과 국왕의 측근 세력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묘청과 정치상 등 개혁파 관료들은 개경의 문벌귀족들과 대립하면서 인종에게 금나라 정벌 및 칭제건원할 것을 주장하였다.
 - 거란의 2차 침입(1010) 당시 거란의 침입으로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갔다.
 - 몽골과 함께 강동성에 포위된 거란족을 격파한 강동의 역(1219)에 대한 설명이다.
 - 고려 건국 초기 정종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을 설치하였다. (가)는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 (나)는 2000년의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 금강산 관광은 1998년 민간 기업을 통해 해로를 통한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
 -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2000년에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이 열렸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된 시기는 2007년이다.

르, 1991년 9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그 해 12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 발표하였다.

15. ① 세종 때 최윤덕, 김종서가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 6진을 개척하였다.

② 왜란 이후 일본의 에도 막부는 쓰시마 섬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를 재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소군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선에 사절 파견을 요청해 왔다.

③ 북벌운동은 17세기 효종 대에 활발히 추진되었고 숙종 때까지 북벌론이 제기되었으나, 18세기 후반에는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과 이용후생에 힘쓰자고 주장하는 지식인들(북학파)이 등장하였다.

16.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앞바다에 출몰하여 통상을 요구하면서 약탈과 대포 발포 등을 자행하자 평양 군민들이 합세하여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 침몰시켰다.

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원인이 되어 1871년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하였으나, 광성보에서 어재언이 분전하여 미국 함대가 철수하였다(신미양요).

③ 1866년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함대가 침입하였을 때 양헌수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분전하여 프랑스군을 격퇴시켰다(병인양요).

④ 제너럴 셔먼호 사건 당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는 화공작전을 펴서 평양 군민들과 함께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 침몰시켰다.

17. 서얼은 양반과 첩 사이의 자손을 뜻하는데, 서얼은 문과에 응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기술관으로 등용되어 중인의 처우를 받았다. 이들은 임진왜란 이후 정부가 납속책을 실시하고 공명첩을 발급하면서 점차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다가 18세기 후반 정조 때 서얼허통이 이루어지면서 박제가, 이덕무 등 서얼 출신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는 등 청요직 진출이 가능해졌다.

① 조선 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향리가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 아전으로 격하되었다.

③ 뱃사공, 백정 등은 법적으로는 양인으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노비처럼 천대받으며 천역을 담당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 등으로 공노비의 노비안에 이름만 있을 뿐 신공을 낼 수 없게 되자, 1801년 순조 때 중앙 관서의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켰다.

18. 경신학교는 1886년 언더우드가 설립한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이다. 1895년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면서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소학교 등 국립 학교가 설립되었다.

① 배재학당은 1886년 아펜젤러가 설립한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이다.

② 동문학은 1883년 정부가 통역관 양성을 위해 세운 영어 교육 기관이다.

④ 원산학사는 1883년 함경도 덕원 부사와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설립한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이다.

19. <성학십도>는 이황의 저서이며, 그림과 해설을 만들어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를 것을 제시하였다. 이황의 주리 철학은 기(氣) 보다는 이(理)를 중시했고, 예안향약은 이황이 경북 안동 지방에서 시행하기 위해 중국의 여씨향약을 본떠 만든 향약이다.

① - <동몽선습>은 중종 때 박세무가 편찬한 아동용 수신서이다.

② - 이이에 대한 설명이다.

④ - 이황과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을 벌인 기대승에 대한 설명이다.

20. 1998년 김대중이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① 박정희 정부는 1969년 장기집권을 획책하여 3선개헌을 추진하였고, 이에 시민과 학생들의 3선 개헌 반대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② 1972년의 유신개헌은 박정희의 장기집권 획책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였다.

③ 18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신군부 출신인 민주 정의당의 노태우가 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민정부의 출범은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 자유당의 김영삼이 당선되어 이루어졌다.

난이도 □ 매우어려웠다. □ 다소어려웠다. □ 평이했다.
■ 다소쉬웠다. □ 매우쉬웠다.

총평

선사	1문제
고대	3문제
고려 시대	4문제
조선 전기	2문제
조선 후기	3문제
근대	3문제
일제강점기	1문제
현대	3문제

2018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에 비해 서울시 9급 시험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었습니다. 사료를 읽고 주제를 찾아야 하는 문제 유형의 비중이 줄어들고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묻는 유형이 늘었습니다. 문제 자체도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교과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선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출제 비율은 앞으로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할만한 문제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문제와 조선시대의 국방정책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 문제의 경우 수험생들이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선지에 배치하여 오답을 유도하는 문제였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긴장하면서 1964년의 6·3 항쟁과 1987년의 6·10 민주항쟁, 김종필과 이후락을 혼동하여 정답을 선택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시대의 국방정책은 조선 후기 국왕의 업적에 관한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효종 때의 하멜, 숙종 때의 금위영 순서를 아는 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성윤음> 또한 영조 대의 업적에 대해 자세히 학습했다면 기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아는 내용을 기준으로 선지를 분석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개인의 수험 준비 정도에 따라 쉽거나 어려웠던 문제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사 전범위에 포함되는 역사적 사실을 묻는 통사(痛史)가 없다는 점, 문제 자체가 시대적 범위 및 주제를 한정시키는 유형이 많았기 때문에 기본 개념 학습에 충실했다면 90점 이상은 무난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 보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이루기를 바랍니다.